

延命巫歌研究

현 승 환*

目 次

- I. 서 론
- II. 비 교
- III. 결 론

I. 서 론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원초적 고민이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도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면 살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누군가에게 삶을 구하게 된다. 여기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고, 그러한 신앙은 현세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도록 철학적 사유를 하게 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사유는 정명사상을 낳게 하였고, 삶에 대한 욕구는 연명을 위한 신앙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이같은 죽음에 대한 원초의식이 한국인들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명무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명무가는 저승사자에게 인정을 베풀고 정명을 연장하는 내용의 서사무가로 제주도의 사만이본풀이, 함흥 지방의 黃泉혼시·혼쉬굿, 부여의 長者풀이 등을 지칭하는 용어¹⁾로 몇 편의 자료가 더 채록되어 있다. 장자풀이는 전남지역에서 많이 채록되는 무가이지만 함경도 함흥과 그 부근 지역에서 생굿(聖人굿)이 행해졌는데 이 때 장자풀이가 불러졌다고 한다.³⁾ 서대석 교수는 장자풀이를 저승신에 관한 이

* 국어교육과 조교수

- 1)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p.131.
- 2) ①이언인 구연본(충남 부여), 김태곤 편, 『한국무가집』Ⅰ, 집문당, 1971, pp.132-136. ②주평단 구연본(전남 해남, '고푸리'로 되어 있음, 『한국무가집』Ⅱ, 김태곤편, 집문당, 1979, pp.146-149. ③오복례 구연본(전남 고흥, '명두굿'이라고 되어 있음), 김태곤편, 『한국무가집』Ⅱ, 집문당, 1979, pp.195-199. ④배성녀 구연본(전북 고창), 『한국무가집』Ⅲ, 김태곤편, 집문당, 1979, pp.345-349.

심으로 하되 제주도의 사만이본풀이와 장자풀이에 초점을 둔다.

II. 비 교

사만이본풀이는 현재까지 7편⁹⁾이 채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종합하여 공통되는 단락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 가난하여 살기 어려우니 부인이 머리칼을 잘라 주며 팔아 쌀을 사 오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총을 사 오고 그 총으로 사냥을 다닌다
- ㉡ 해골을 발견하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해골에게서 자신이 죽게 되는 운명임을 알다.
- ㉢ 해골이 치성을 통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
- ㉣ 저승신의 명을 받고 내려온 차사는 사만의 치성을 받고 대신 대명대충하다.
- ㉤ 저승에서는 삼차사의 잘못된 일을 알고 죽이려 하다
- ㉥ 삼차사는 계략으로 살아나다.

-
- 3) 임석재, “장자풀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p.285-286.
 - 4) 서대석, 『한국구비문학대계』 수록 무가의 분류 체계, 박경수·서대석,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Ⅲ) 한국민요·무가유형 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p.454-455.
 - 5) ①황분순, ‘장자풀이’, 박순호, 『한국구비문학대계』 5-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p.402-415. ②오판선, ‘장자풀이’, 박순호, 위의 책 5-6, 1987, pp.506-519. ③주평단, ‘대심매기굿노래’, 이현수, 위의 책 6-5, 1985, pp.670-676, 진금순, ‘고풀이’, 최덕원, 위의 책 6-7, 1985, pp.209-212. ④조동운, ‘장자풀이’, 김근태·최래옥, 위의 책 6-10, 1987, pp.127-135. ⑥김막례, ‘고풀이’, 최덕원, 위의 책 6-12, 1988, pp.99-108. ⑦김행연, ‘명두 고풀이’, 최덕원, 위의책 6-12, pp.470-479.
 - 6)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연구소, 1930, pp.28-38. 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 금화사, 1973, p.350. 그 외로 박현국, “장자풀이 무가 고찰”, 『비교민속학』 14집, 1997.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호, 1997, pp.223-246 등을 들 수 있다.
 - 7) 大林太良, 『神話學入門』, 中央公論社, 1970, pp. 154-163. 신화선행설은 원시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신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신화의 내용을 상징적인 행위로 표출하는 의례가 연행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개 재배민 문화에서 현저하다고 한다.
 - 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870.

야기에 포함시키는데⁴⁾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따르면 장자풀이와 내용이 유사한 이본으로 7편⁵⁾이 전한다. 그 중에서 제주도의 사만이본풀이와 함경도의 황천혼시의 해골 삽화가 유사하고 연명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은 장자풀이와 유사하다.

연명무가에 대한 연구는 손진태가 황천혼시를 발표하고 장주근의 언급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⁶⁾

연명을 위한 서사무가는 의례와 함께 공존하며 전승되어 왔으므로 서사무가의 논의에서 의례를 제외하면 본 의미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원시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신화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을 상징적인 행위로 표출한 연기가 의례라는 신화선행설⁷⁾ 입장에서 연명무가를 해석할 때 그 의례 요소를 보조자료로 차용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장자풀이 무가는 전라도, 충청도 일부의 셋김굿에서 전승되는 무가로 무당이 '고풀이'를 할 때 구송한다. 제주도의 사만이본풀이는 새해를 맞이하여 정월달에 1년간의 행운을 비는 굿인 멩감에서 불리워진다. 굿의 내용은 초감제를 하고 신을 청해 빌고 세경본풀이를 하여 농사의 풍등을 빌고 집안의 조상신을 놀린 후 사만이본풀이를 창하면서 문전액막음을 하여 1년간의 집안의 무사, 행운을 비는 것이다.⁸⁾

이처럼 두 무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제의에서 불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 기능은 셋김굿에서 망자의 넋을 씻기고 극락으로 천도시킬 때, 장자풀이를 구송하여 죽을 운명의 사람도 살려내었다는 신화적 사실을 들고 망인의 극락천도를 기원하고 있고, 제주도의 사만이본풀이도 액을 막아 가내 안녕을 기원하는 점에서 기원을 목적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다. 망인의 극락 천도를 기원하는 점은 사령굿인 시왕맞이에서도 보인다.

같은 기능을 하는 제의에서 불리워지는 무가이기 때문에 상위점을 찾아 비교해보고, 무가가 어떤 문화 요소를 수용하고 있는지를 정명인식, 연명방법, 문화배경으로 나누어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본토와 제주도의 의례 및 서사무가가 별도로 생성되어 구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형은 하나의 관념에서 출발한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문화 전파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의 대상은 채록된 모든 자료를 중

9) 진성기(『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3편, 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1편, 문무병(『제주도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편, 장주근(『한국의 민간신앙』, 자료편, 금화사, 1973) 1편, 『풍속무음』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1편

구성의 비교를 위해 장자풀이의 내용을 통합하여 공통적인 요소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주인공이 죄를 지어 죽을 운명의 꿈을 꾸다.
- ② 차사에게 치성을 드리면 된다는 해결 방안을 문복쟁이에게서 듣다.
- ③ 차사는 치성을 받고 대신 대명대충하다.

위의 사만이본풀이와 장자풀이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과 ①②③이 서로 대응함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사만이본풀이가 원형이거나 장자풀이가 원형일 수 있음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1. 정명 인식

먼저 ㉠과 ①의 대응관계부터 살펴보자. 이는 정명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제주도의 사만이는 가난하여 먹고 살기 어려워지자 아내는 자신의 머리를 잘라 남편에게 이를 주고 팔아 쌀을 사 오도록 한다. 자식들이 밥달라 옷달라 하며 울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남편은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사냥총을 사고 온다. 다음날부터 사냥을 다녔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우연히 해골을 발견하게 되는데 해골은 자신을 잘 모셔주면 거부를 시켜준다고 한다. 이에 사만이는 해골을 정성스레 모시고 귀가하여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자 아내는 당쿨¹⁰⁾ 위에 모시고 제사를 드린다. 해골은 그 이후로 사만이에게 사냥감을 알려 주어 금새 부자가 된다. 그러다가 어느날 해골은 사만이가 30이 정명임을 알려주게 된다.

장자풀이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죄에서부터 조상을 모시지 않은 죄,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를 핍박한 죄까지 나열하는데 이는 사마장자가 욕심이 지나치고 부의 추구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어 버린 사마장자는 부모 형제는 물론 조상숭배까지 저버린 죄때문에 저승왕이 보낸 차사에게 잡혀갈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의 사만이본풀이는 해골이 정명을 알려주고 있고, 장자풀

10) 당쿨은 신을 모셔두는 곳을 지칭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주 13)을 참조.

이는 조상숭배를 소홀히 한 죄가 저승왕에게 알려져 차사를 보내게 되고, 그러한 사실이 장자의 꿈에 나타나고 있어 사만이본풀이와 장자풀이는 확연히 다른 것같이 보인다. 하지만 사만이본풀이의 이본을 보면 사만이가 부자가 된다고 너무 기뻐하여 해골 모시기에는 정성을 다하고 조상 제사는 소홀히 한다고 하는 예가 보인다.¹¹⁾ 이로 보아 서사 문맥상 징벌을 받는 내용은 해골이 정명을 알게 되는 경우와 조상 숭배를 소홀히 하여 그 죄로 징벌을 받게 되는 두 가지의 사고로 나뉘어진다.

이 해골 문제는 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 최원오¹²⁾는 백년해골형 무가로 칭해지는 사만이본풀이는 해골이 직접 등장하여 인간의 정명에 관여한다고 하여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 속에 포함시켜 논하면서 그 속에는 조상 숭배 의식이 녹아들어 형성되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사만이본풀이와 차사본풀이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사만이본풀이는 연명무가요, 차사본풀이는 저승차사의 유래를 설명하는 무가이기 때문이다. 기능도 사만이본풀이는 정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것으로 액을 막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고, 차사본풀이는 영혼을 고이 모셔가 달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같은 부류로 묶어 논의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만이본풀이에서 사만이부부는 백골에게 치성을 드려 부유하게 되고 사만이가 죽을 운명까지도 극복하고 있다. 그때 백골을 집안의 '당클' 위에 모셔 제사를 드리고 있다. 조상에 대한 기일제사를 치를 때는 조상을 위한 제사상이 따로 있어 당클에 모시지 않는다. 당클에 모신다는 것은 조상신의 성격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당클¹³⁾은 제주도에서 굿을 할 때 신을 모시는 곳을 의미한다. 마루방 네 벽 상부에 널빤지를 선반처럼 달아맨 제붕이다. 이것은 제장의 무대 장치의 하나로, 큰 굿의 경우 삼천천제석궁(하늘의 신)당클, 시왕(저승차지 신)당클, 문전본향당클, 마을영신당클로 되어 있다.

이처럼 선택된 신만이 머물 수 있는 거처인 곳이 당클이다. 이와 같은 당클에 해골을 모셔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 조상제사보다 먼저 정성들여 모신다고 하니 이것은 집안을 지켜주는 신과 같은 존재로 받들고 있다는 것이다. 집안을 지키는 신으로 조왕, 성조, 조상신 등이 있겠으나 그 외로 인간의 명과 복을 이어주고, 현

11) 이중춘, “명감본풀이(사만이본풀이)”, 문무병, 앞의 책, pp.289-302.

12)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호, 민속학회, 1997, pp.223-246.

13) 문무병, “제주도 굿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p.13.

실적인 부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해골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다.

가난하여 자식들에게 쌀밥을 해 먹이려고 아내가 머리칼을 잘라 팔아오게 하여 구명도식을 하고자 하였는데 남편은 총을 사 오고, 그것으로 사냥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해골을 발견하여 모시게 된다. 이때 집안을 담당하는 아내가 당클로 모셔 들여 해골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사만이 본풀이의 공통된 전개이다.

사만이본풀이에서 정명을 알게 되는 과정은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해골을 모시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그러면 장자풀이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주인공인 사마장자가 정명임을 알게 될까.

장자풀이에서는 주인공인 사마장자가 죽을 운명의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되는 원인이 일가 화목하지 않고, 동기간 우애 없고, 없는 사람에게 구전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제사를 하지 않는 등 인색하고 욕심 많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꿈의 내용은 수저가 세 도막으로 꺾어진다거나, 밥그릇 굽이 빠진다거나, 지붕에 흰 것이 나타나거나, 사인교를 타 본다거나 하는 등등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르는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는 사만이본풀이와 다른 차이이다. 사만이본풀이는 해골이 직접 정명임을 알려주는데 장자풀이는 꿈을 꾸게 하고 이를 해몽하여 주인공이 정명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 요소만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해골의 계시 곧 신의 계시로 인간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사고관념이 변하여 점쟁이에게 인간의 운명을 의지하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무속의 담당자인 무당이 고대에는 제의의 주관자일뿐만 아니라 의료행위까지 했으며, 점복자의 기능까지 갖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무당의 기능이 후대에 기능이 분화되면서 점복자들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문화배경 절에서 이루어진다.

장자풀이에서는 주인공이 꿈을 꾸게 되는 주된 내용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하지 않아 꿈을 꾸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만이본풀이에서 해골이 죽을 운명임을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즉 인간으로서 본연의 임무, 즉 조상에 제사하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등등의 선을 베풀어 인간사가 편안해야 함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신화의 모범 기능¹⁴⁾을 어겼을 경우는 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벌의 양상이 장자풀이에서는 죽게 되는 운

14) 장덕순 외, 앞의 책 p.32에 따르면 말리노브스키의 의견을 빌어 신화는 풍속을 고정시키고, 행위의 모범을 설정하고, 어떤 제도에 위엄과 중요성을 부여하는 규범적인 힘을 가진다고 했다.

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주도의 사만이본풀이에서도 사만이가 조상제사는 소홀히 하고 해골만 정성으로 모시자 조상신들이 저승신에게 등장가서 자손인 사만의 별을 청하고 있다. 그래서 저승신은 차사를 보내어 사만을 잡아들이라는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차이는 사만의 죽음은 정명이 30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이지만 장자풀이에서의 사마장자의 죽음 인식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말미암는다.

2. 연명 방법

다음은 사만이본풀이에서 차사에게 치성을 드리면 정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과 장자풀이에서 그러한 해결 방안을 문복쟁이에게 듣는다는 ㉡의 대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연명방법은 어떤가에 대한 해명이다. 그 방법에 대한 이해는 연명무가가 무속적 사고에서 고대에 형성된 것인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인지를 아는 데 도움을 준다.

사만이 본풀이에서 보면, 정명이 되는 날 사만이는 해골이 시킨 대로 관복, 띠, 대백지, 강명주, 물명주, 은바가지를 각각 3개씩 준비하고, 은 만남, 금 만남을 마련하여 세 거리 길에 나가 병풍 치고, 젖상을 차리고 백 보 밖에 엎드려 있다. 또한 부인은 집에서 심방을 청해다가 염라대왕을 맞이하는 대시왕연맞이 굿을 행한다. 이때 염라왕의 명을 받은 저승 삼차사가 사만을 잡으러 내려서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기가 나서 눈 앞에 보이는 음식을 받아 먹는다. 그리고 나서 삼차사는 그 음식이 공짜가 아니라 사만이가 준비한 음식임을 알고 고심을 한다. 사만을 잡으러 왔는데 사만의 대접을 받은 셈이다. 남의 것을 공짜로 먹으면 목에 걸리는 법이라는 것은 바로 사만의 부탁을 아니 들어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삼차사는 사만을 불러 그와 같이 집으로 가 보니 집에서는 사만의 아내가 4만 3필의 소로 액을 막고 있는 곳을 본다. 이러한 치성은 사건의 반전을 일으킨다.

사만이는 음식 치성을 통해 자신의 정명을 연명하고 있다. 이는 장자풀이에서도 동일하다. 부모 제사를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명도식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차사가 사마장자를 잡으러 오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문복쟁이의 점괘대로 노적 혈어 기민하고, 많은 쌀을 들여 술과 밥을 만들고, 돼지 잡고, 옷 세 벌 지어 놓고 삼차사를 치성한다.

사만이 본풀이와 다른 점은 사만이는 음식만 차려 대접하고 그 음식을 먹은 차

사가 직접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적극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장자 풀이에서 사마장자는 3차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삼차사는 할 수 없이 사마장자를 살려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같은 사실은 정명인 목숨 혹은 염라왕의 뜻에 따라 죽게 된 운명도 치성을 드림으로써 연명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만이나 사마장자나 연명하는 방법은 어떤가.

사만이 본풀이에서는 사만의 운명이 삼십이었는데 이를 삼천 년으로 바꿈으로써 해결한다. 三十의 글자 위에 붓으로 한 금을 그어 三千으로 바꾼 것이다. 또는 동일한 연월일시의 유사만이가 있는데 그의 정명이 삼천 년이므로 그를 삼십 년으로 바꾸고, 사만의 정명을 삼천 년으로 고쳐버리고 있다. 또 다른 예는 주년국 소사만이와 비슷한 이름의 오만골 오사만을 대신 데려가기도 한다. 하지만 오만골 오사만이는 45600년이 정명으로 되어 있어 잘못이 밝혀져 삼차사는 곤욕을 치른다. 삼차사는 저승 재판관 심부름꾼을 시켜 인간의 정명이 적혀 있는 인물도성책을 찾아 사만을 45600으로, 오사만을 33으로 고쳐놓음으로써 위기를 극복한다.

여기서는 연명방법으로 ㉠과 ㉡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저승의 인물도성책에 정해진 정명을 고침으로써 정명 연장을 이루는 것이 하나요, 다른 하나는 비슷한 이름의 소유자나 생년월일시가 같은 다른 사람을 대신 잡아가는 것이 있다. 또한 인간에게는 정명이 있는데 이를 바꿈으로써 연명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 연명은 희생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으로 대신한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정명이 三十에서 三千으로 바꾸는 내용은 고대적 요소는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사고는 글자가 만들어지고 난 후 즉 한자가 유입된 후의 요소로 보인다. 그렇게 볼 때 고대적 요소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다른 것으로 희생을 함으로써 정명을 연장하는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사만이본풀이에서는 사만이 대신 다른 사람을 잡아가도록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나 이는 의례와 차이를 보인다. 의례에서는 액을 막을 때 정명의 글자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잡아간다는 내용의 사만이본풀이를 창하지만 그러한 신화적 사실의 모의적 행위로는 닭을 희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예는 장자풀이에서 보인다. 장자풀이에서 사마장자가 차린 음식을 대접받은 차사들은 음식 대접을 받고 어찌 대접한 사람 곧 사마장자를 데려갈 수 있겠는가 하며 우마장자를 데려가기도 하는데 많은 예가 인간이 아닌 짐승을 대신 잡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예를 들어보자.

〈옛날 옛적에는 엄한 말로 대신을 우리 인생은 쉬웠는데 초로같은 우리인생

삼화장자 대신실라고 실을자고 때를자고 닭으로 대신을 시우고 나면>
 이는 고폘이¹⁵⁾ 내용 중 일부인데 닭을 희생으로 쓰고 있다. 장자풀이에서도 이
 러한 예가 보인다.

<그기서 또
 밥도 먹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노자 받아 손에들고
 우리가 여기를 왔으니 그저갈수 전혀없다
 쉬윈이나 돌고가자
 앞으로보니 앞노적 뒤로보니 뒷노적 옆으로보니 옆노적
 대대에 내린노적이 첩첩이 쌓였구나
 우리가 장자는 못잡아 가나마
 장자님네 타고당긴 천리마나 잡어가자
 그말 혼을 빼니 천질만질 뛰다 당장에 직사한다.>¹⁶⁾

여기서는 장자가 타고 다니던 말을 희생으로 쓰고 있다. 이러한 예는 김막례의
 고폘이¹⁷⁾, 오복례 구연의 명두굿¹⁸⁾에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동갑짜리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 경우와 말이든, 닭이든 희생으로 대
 신하여 연명하는 화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명은 제의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제주도 큰굿에서는 액막이를 할
 때 사만이본풀이를 창하고 나서 주년국땅 사만이가 삼차사에게 액연을 막아 삼천
 년간 살았던 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심방은 사만이가 액을 막아 연명했던
 법으로 액을 막고자 한다고 하면서, 마소가 없어 목숨 대신 바치지 못하니 대신
 약으로 쓰는 좋은 닭을 바친다는 내용의 말을 구술하고 액막이 상에 올렸던 닭을
 바깥으로 던진다.¹⁹⁾

설명된 바와 같이 사람의 목숨을 닭으로 대신하여 연명하고 있다. 이는 사람을
 희생으로 대신하는 예보다 훨씬 고 형태라 생각한다. 무속의례를 통해 닭을 희생

15) 진금순, '고풀이',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p.209-212.

16) 안사채·조동운, '장자풀이', 김균태, 『한국구비문학대계』 6-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134.

17) 김막례, '고풀이',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pp.97-108.

18) 오복례, '명두굿', 『한국무가집』Ⅱ, 김태곤편, 집문당, 1979, pp.195-199.

19) 현용준, 앞의 책, pp.285-286.

으로 하여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관념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고틀이, 장자풀이를 행하는 전남지방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짐승을 희생으로 연명하던 방법에서 인간을 대신 잡아가게 하는 사고로의 변화는 제의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제의의 주술성이 사라지면 인간은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대신 죽음으로써 자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관념으로 변화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귀중한 인간의 생명이 짐승을 희생으로 바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서 희생의 대상이 바뀐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대에는 본풀이에서도 짐승을 희생으로 하는 내용이었을 것인데 후대로 들어오면서 다른 인간을 대신 잡아가는 것으로 변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풀이는 구비전승의 특성상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변이과정을 겪었음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티프가 끼어들기도 하고 소재의 개변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이는 전승자의 구연 능력, 경험, 사회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전승되는 본풀이들은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3. 문화배경

그러면 연명설화에 속하는 본풀이들은 어떤 원형적 요소를 갖고 있으며 어떤 문화 배경하에서 형성되었을까.

이에 대한 의견은 장주근²⁰⁾의 사만이본풀이에 대한 논의에서 제시되었다. 제주도에서 채록된 사만이본풀이는 총 7편이다. 가장 오래 전에 채록된 추엽옹의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후에 채록된 것이다. 또, 유사한 무가가 동북부의 함경도에서 채록되었다.²¹⁾ 이것은 35년의 차이를 두고 채록되었지만 내용은 유사하다.

동북부의 황천혼시는 삼형제가 밭 구경 갔다가 해골을 발견하거나²²⁾ 나무하러 갔다가 백골을 발견한다.²³⁾ 3형제는 이 백골을 정성들여 모시니 그 덕으로 부자가 되고, 나중에는 자신들을 잡으러 온 3사자가 소, 油衫, 놋동이로 삼형제의 목숨과

20) 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 논고편, 금화사, 1973, p.350.

21)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연구사, 1930, pp.28-38, 임석재 · 장주근, 『관북지방무가』 추가편, 문교부, 1966, pp.99-105.

22) 손진태, 위의 책, p.28-38.

23) 임석재 · 장주근, 앞의 책.

대명대충하고, 81세까지 장수하고 있다. 관북지방 무가에 따르면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고, 생년월일이 같은 자를 대신 잡아가고, 정명도 81세로 정해 주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동북부와 제주도의 무가가 유사하게 전승된다는 점에서 이것의 조형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몇 개의 본풀이를 대상으로 한반도와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설화들이 별개의 근원을 갖는 것이 아니며 동일 유형의 설화들이 전승과정에서 나타난 변이 현상이라는 연구 성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대석²⁴⁾은 제석본풀이와 초공본풀이가 같은 유형의 것임을 밝히면서 문학의 근원을 무가에서 찾고 있고, 사재동²⁵⁾은 안락국태자경과 이공본풀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공본풀이는 불전계 설화의 영향이라 하였다. 또한 현승환²⁶⁾은 삼공본풀이를 다루면서 내 복에 산다게 신화와 개안신화의 혼합으로 형성된 잔존물이라 하였다. 이처럼 연명무가를 포함한 일반본풀이들은 다양한 성격의 형성 배경을 갖고 있는 무가라 하겠다.

사만이 본풀이의 경우도 장주근은 황천혼시와 비교를 통해 그 조형이 민담인지 불전설화인지, 일정 중심지의 무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록문헌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²⁷⁾ 그러나 남부 지방에서 주로 채록된 장자풀이를 통해 그 흔적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지역의 장자풀이의 공통된 줄거리는 조상제사에 소홀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죄를 지은 사마장자가 죽을 운명의 꿈을 꾸고, 그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상을 차려 굿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느 이본을 막론하고 대부분은 사마장자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자네 집에서는 추원굿, 큰굿, 사자풀이 등을 행하고 있다. 수록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바로 이런 경우가 불교 영향인 듯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것은 무당들이 굿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의 예도 있듯이 무당이 위기 극복 방안으로 행하는 제의 속에 수록제와 같은 불교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된 것처럼 장자풀이에서 무속적 요소의 다른 하나는 사마장자의 목숨을 대신한 희생이었다.

24)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25) 사재동,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4.

26) 현승환, “내 복에 산다게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1993.

27) 장주근, 앞의 책, p.350.

삼차사가 저승왕의 명을 받고 사마장자를 잡으러 왔다가 사마장자가 차려놓은 음식을 공짜로 얻어먹고 난 후 사마장자를 살려주는 대신 다른 대상을 희생으로 하고 있다. 그 희생으로는 오마장자, 우마장자와 같이 사마장자와 같은 성을 갖고, 생년월일시가 같은 사람을 대신 잡아가거나, 사마장자가 타던 말이나 말을 사람처럼 꾸며 대신 그 혼을 잡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흔히 사람에게 닥칠 나쁜 액을 막는 방법이다. 또한 그러한 관념 속에는 인간의 죽음은 육체와 혼의 분리에 있고, 그 혼은 차사가 저승으로 잡아간다는 문화 요소의 표현이다.

이러한 문화 현상을 배경으로 한 실제 무속의례에서 액막이를 어떻게 하는가. 경기도 도당굿²⁸⁾에서는 군웅굿을 다한 뒤에 잡귀를 물리치는 수비치기를 하고 생닭을 던지게 된다. 닭을 던지면 머리가 밖을 향해야 좋은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던진 닭은 영락없이 죽는다고 한다.

제주도 의례의 경우, 현용준²⁹⁾에 따르면 사만이 본풀이는 일명 멧감본풀이라 하며, 이 멧감(冥官)은 본질적으로 차사와 같은 것인데, 같은 신이 이중으로 신화화되어 다른 신처럼 생각하게 된 것 같으며, 이 신에게는 신년가제로 '멧감'이란 의례를 행한다고 한다.

이 멧감도 방위에 따라 동, 서, 남, 북 중앙명관이 각각 따로 있고, 또 각 집안의 직업에 따라 농가에는 제석멧감, 수렵가에는 산신멧감, 바다에는 요왕멧감, 배에는 선왕멧감 등이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액막이를 할 때, 심방은 군복차림으로 액막잇상을 문 앞에 내어 놓고 “목숨 잡은 열명부대시왕(十冥府大十王) 십육스제님(十六使者) 앞으로 천오액년(天爲厄緣)을 막저옵네다.” 하고서 천황차사는 월직사자, 지황차사는 일직사자 하면서 이승차사로 강림이 있는 것까지 나열한 후, 차사관장님전에 액을 막고자 하여 액막이를 하게 됨을 아뢴다.

이어서 날과 국을 섬기고, 집안연유를 닦고, 사만이본풀이를 창한다. 그리고서 옛날 사만이가 삼차사에게 대접을 하여 액을 막아 삼천년을 살았던 법으로 재물과 희생으로 액을 막고자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 이어서 말이 없어 말 대령을 못하고, 소가 없어 소 대령을 못하여 대신 닭으로 목숨 대명(代命)을 한다면 액막잇상에 올렸던 닭을 잡아 바깥으로 던진다. 이는 사람의 목숨 대신 닭의 목숨을 대신 잡아감으로써 사만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의미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것으로

28) 김헌선, 『경기도 도당굿무가의 현지연구』, 집문당, 1995, p.51.

29)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p.156

제주도의 굿에서뿐만 아니라 경기도 도당굿에서도 닭을 희생으로 하며 액을 막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화 선행설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사만이본풀이에서 중심되는 내용의 표현이 의례로 상징화된 것이라 본다면 이는 신화의 의례적 표현이다. 황천혼시나 장자풀이나 중심되는 내용은 인간의 정명을 연명하는 것이 중심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에 따른 의례 역시 액막이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오마장자니, 우마장자 같은 인간을 대신 희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장자의 연명을 위해 사마장자가 타던 천리마를 대명하는 것이 무속적 사고의 표현에 합당하다 하겠다.

함경도의 경우는 손진태의 보고를 통해 볼 때 아이들이 병이 들었을 때 기원하는 대상이 황천혼시의 3형제신이라는 점은³⁰⁾ 제주도의 액막이와 같은 굿을 행했음을 추정케 한다.

이렇게 볼 때, 북쪽의 황천혼시, 중부의 장자풀이, 남부의 사만이본풀이 등은 정명을 연장하는 동일한 성격의 무가임을 알겠다.

그러면 이러한 연명무가 속에 나타나는 요소들은 어떤 문화 배경 하에서 형성되었을까.

함경도의 예는 주인공 형제가 농사를 짓다가 화전밭에서 백골을 만나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있거나,³¹⁾ 나무를 하러 가던 3형제가 땅에 뒹구는 백골을 발견하고 나무 판 돈으로 좋은 종이를 사 백골을 곱게 싸서 매장을 시켜주고 있다.³²⁾

제주도의 경우, 주인공 사만이는 한라산을 무대로 수렵을 하며 다니다가 백골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집으로 가져와 조상으로 모시고 부자가 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사만이를 한라산을 수렵장소로 하고 있던 사냥꾼들의 수렵신으로 보기도 한다.³³⁾ 그러나 사만이본풀이를 자세히 검토하면 정명이 30세라는 주인공이 저승차사에게 의례를 행하여 연명하였다는 것이 주 내용이고, 본풀이 구송 말미에는 사만이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연명한 바가 있으니 대명대충을 통하여 기원자의 목숨을 연명하여 달라며 닭을 희생으로 액을 막고 있다. 따라서 사만이에게서는 신으로서의 성격이 눈에 띄지 않는다. 평범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사마장자도 마찬가지이다.

30) 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 논고편, 금화사, 1973, p.350 재인용.

31) 손진태, 앞의 책, pp.28-38.

32) 임석재 · 장주근, 앞의 책, pp.99-105.

33) 장주근, 앞의 책, p.350.

사만이 가져온 해골은 신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제주도의 당신본풀이를 보면 당신은 치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흥협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여기에는 첫째, 인간이 먼저 신의 뜻을 알아차리거나 신이 먼저 달라는 요구가 있어 후한 음식대접을 하는 경우, 둘째, 신은 고고히 빠지고 있다가 아무도 대접하여 주는 인간이 없으면 괘씸하다 하고 갑자기 이변과 재해를 내려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존재를 인지하게 하여 승앙을 받는 과정, 셋째, 첫눈에 보이는 인간을 주신앙민으로 삼아 제의를 받고 당신으로 좌정하는 경우이다.³⁴⁾ 사만의 경우는 두 번째의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만이 사냥을 하러 다니지만 사냥감을 전혀 찾지 못하다가 백골이 자신을 잘 모셔주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신본풀이에서 당신이 신앙민에게 흥협을 주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킨 후 제의를 받거나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다.

해골은 신으로서 저승차사가 사만을 잡으러 오는 일까지 알고 있다. 이는 앞서 살핀 신으로 대접을 받기 위하여 흥협을 주고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사만이 사냥꾼이기에 해골은 사냥을 잘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신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것은 수렵신의 성격으로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기 위해 모시던 신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원오는 이를 조상신으로 여기고 있지만³⁵⁾ 고대 문화의 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오히려 수렵신 성격이 강하다.

장자풀이에서는 이러한 수렵신 성격이 사라졌다. 사만이본풀이에서 주인공은 해골로부터 정명이 다 되었음을 듣게 되는데 장자풀이에서는 점쟁이에게서 듣게 된다. 이는 해골로 상징화되어 표현되던 수렵문화 요소가 신성성이 약화되면서 나타난 결과인 듯하다. 해골이 정명을 알려준다는 것은 신과 교섭할 수 있는 무당이 신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의 뜻을 물었을 때 신은 무당의 입을 빌어 대신 전하는 것이다. 공수와 분부사됨 등이 같은 성격이다. 이처럼 해골이 무당의 입을 빌어 주인공에게 정명이 되었음을 알려주던 것이 점쟁이를 통해 정명을 알게 되는 것은 무당의 역할의 변이의 결과라 본다.

무당은 사제, 점복, 영매, 치료를 담당한다. 이들은 역할이 분화되면서 사제자는 제관과 무당으로, 점복자는 지관과 택일사로, 치료를 담당하는 자는 의사가, 그 외

34)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p.386.

35) 최원오, 앞의 논문.

로 점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장자풀이에서 장자의 꿈 해몽을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것은 무당의 역할이 분화되면서 나타난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점쟁이의 꿈 해몽은 당연히 고대 무당의 기능에서 분화된 결과의 모습이므로 본풀이 역시 변화의 과정을 겪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해골의 예시는 꿈으로 변이되고, 수렵신으로 여겨지는 해골의 뜻은 주인공 사만에게 전달되는데 이는 무당이 액막이를 원하는 신앙민에게 구송을 통한 신의 뜻 전달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상으로 보아 사만이본풀이는 수렵문화를 배경으로 형성된 해골삽화+연명설화(장자풀이)임을 알겠다.

Ⅲ. 결 론

사람의 삶과 죽음의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은 종교적 심성을 자극하고, 관념론으로 발전하였다.

연명무가는 언젠가 사람은 죽게 되지만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으로 황해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분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가에 참여하는 신앙민들은 어떤 관념 속에서 무가를 수용하고 있으며, 무가가 형성된 문화배경은 어떠했을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명무가는 인간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에서 출발한다는 관념에서 정명사상이 배경을 이루고 있었고, 연명방법으로는 치제를 통하여 정명을 연장하고 있었다. 이는 처음에는 짐승을 희생으로 바침으로써 인간의 정명을 연장하던 사고가 차츰 그 신뢰성을 의문시하면서 타인을 희생으로 하여 자신의 정명을 연장한다는 사고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제주도의 사만이본풀이와 황해도의 황천혼시에만 남아 있는 해골 삽화는 고대 수렵문화 요소이며 연명무가는 해골삽화+연명설화로 구성되어 전승되고 있으며, 연명설화만 독자적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장자풀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연명무가는 한국인의 생사관념을 살필 수 있는 것이지만 저승관과 차사관을 설명하는 차사본풀이와 그와 유사한 짐가제굿이 있기에 이들과의 상관관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연명무가와 유사한 고소설인 왕랑반혼전과의 비교를 통해 설화의 소설화 과정을 살피는 작업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김태곤 편, 『한국무가집』 I, 집문당, 1971.
김태곤 편, 『한국무가집』 II · III, 집문당, 1979.
김현선, 『경기도 도당굿무가의 현지연구』, 집문당, 1995.
大林太良, 『신화학입문』, 중앙공론사, 1970.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박현국, '장자풀이무가 고찰', 『비교민속학』 14집, 비교민속학회, 1997.
사재동,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4.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서대석, 『한국민요 무가유형 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연구사, 1930.
임석재 · 장주근, 『관북지방무가』 추가편, 문교부, 1966.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 논고편, 금화사, 1973.
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 자료편』, 금화사, 197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풍속무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진성기,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 한국민속학회,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5-4, 5-6, 6-5, 6-7, 6-10, 6-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1984.
현승환, '「내 복에 산다」계 설화연구',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1993.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Abstract

A Study on Ballad of Expanding Life

Seung-Hwan Hyun

The problem of life and death of human has been an important interest. Because of it, a thought about it has stimulated religious moral nature and progressed into ideology. Ballad of expanding life is presumed to be distributed from Hwanghae-do to Cheju-do. As a result of analysis of ideology of a believer, human's death has ideological background, that is it begins from separation between body and soul. And a way of expanding life can be achieved through a memorial service. Originally a ceremony was an idea to expand a fixed life by sacrificing the beast, but wondering the reliability of it, it was changed into an idea of expanding their own fixed life by sacrificing other people. Bone illustration appeared in ballad of expanding life in Cheju-do and Hwanghae-do was the element of ancient hunting culture, and it was consisted of bone illustration and illustration of expanding life. What illustration of expanding life was uniquely sung was Jangja-puli'.